

# 라틴 아메리카 공부 부록

로산나 파니조-발라다레즈 지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소망·사랑

라틴 아메리카 공부 부록  
로산나 파니조-발라다레즈 지음

© 2016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모든 판권 소유  
475 Riverside Drive, Room 1501  
New York, NY 10115  
www.unitedmethodistwomen.org

이 부록과 여기 있는 자료들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내용을 바꾸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  
사용시 그 자료에 “라틴 아메리카 공부 부록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United Methodist Women) 판권 소유. 허락을 받아 사용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  
이 책 안에 있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재사용할 수 없음.

모든 성경 인용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한 1989년 표준새번역 성경을 사용하였음.  
대한 기독교서회가 판권을 가지고 있고 허락을 받아 사용함.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목적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여성들의 공동체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 우리의 비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전 세계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 비전의 실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장할수 있도록 조직되며,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연한 구조를 갖춘다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공동체와 단체, 직장과 교회 및 공적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킨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자비로운 봉사와 옹호를 통해 불공정한 정책과 체제를 바꾸려 일한다.

우리는 적합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 목 차

들어가는 말 .....	5
부록 .....	6
결론 .....	18
작가 소개 .....	19
후주 .....	20

## 들어가는 말

이 책자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최근에 발행한 소냐 마리아 바르보사 디아스의 *라틴 아메리카: 사람과 그들의 신앙* 공부의 부록이다. 이 부록은 라틴 아메리카의 전반적인 지역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아이티, 이민, 교황 프란시스의 방문,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 기후 정의, 20세기 초반에 브라질과 페루에 온 여성교사들과 학교들... 여러 다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부록이 독자들과 선교학교 참가자들에게 연합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사역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현실과 문제들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발견의 원칙과 라틴 아메리카 토착민들에게 끼친 영향

15세기에 2 번에 걸친 교황 칙서들이 “새 세계”와 아프리카의 유럽 지배를 위한 체계를 세우게 되었다. 1452년, 니콜라오 교황 5세가 포르투갈 왕 알폰스 5세에게 로마누스 폰티팩스(Romanus Pontifex)라는 교황 칙서를 통하여 기독교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쟁을 할 수 있고 기독교가 아닌 나라나 그들의 통치영토를 점령하고, 식민화하고, 착취할 수 있다는 허가를 내렸다. 1493년에 알렉산드레 교황 6세는 스페인 왕과 여왕들에게 교황 칙서, 인터카테라(Inter Caetera)를 통하여 그 당시와 미래에 발견된 모든 영토와 토착민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었다. 그 시기에 콜럼버스가 신 대륙에 오게되었다. 새로 발견된 대륙은 1494년 토르테시아스 조약(Tordesillas Treaty)에 의하여 남북으로 양분되었다. 동쪽은 포르투갈에, 서쪽은 스페인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이 교황 칙서들은 토착민 기관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코 폐지되지 않았다.

이 “발견의 원칙”은 “사람들의 권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법의 기반”이 되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토착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원래 있던 나라들을 더 크고 강한 나라의 보호영토로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sup>1</sup>

이러한 원칙이 600여 그룹을 대표하는 4천 만명의 사람들이 사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그들의 대다수는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멕시코, 과테말라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다.<sup>2</sup> 토착민들의 운동이 인권 보호 영역에 많은 진전을 획득하게 되었으나, 그래도 채취산업과 대기업들을 상대로 그 지역의 자원과 영토에 관한 투쟁이 계속되고있다.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대개 자연 자원이 풍부하여 기름, 은, 금, 동, 목재들이 풍부한 곳이다. 토착민들의 자연 자원이 착취 당하게 되면 거기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던 그들의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 미국과 쿠바 관계의 새로운 발전

1961년 부터 반 세기 동안 서로 관계가 없던 미국과 쿠바는 2014년 12월에 쿠바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와 미 대통령 바락 오바마(Barack Obama)가 두 나라사이에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협상을 동시에 발표했다.

2015년 4월 10일에서 11일 까지 파나마에서 열린 아메리카 7회 정상 회담에서 12월 발표 이후로 처음 두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을 보였다. 그 정상 회담의 주제는 “공정한 번영: 남북미의 협조의 도전”<sup>3</sup>이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약 35 국가 대표들이 총회에서 연설을 했다. 최종적인 문서는 없었지만 교육 문제, 이주, 환경, 공중위생, 인터넷 보도 등에 해당되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대표들의 주목의 중심이 되고 지지를 받은 주제는 미국과 쿠바의 화해였다.

2015년 7월 20일에 워싱턴 디시에서 쿠바 대사관이 다시 열렸을 때 쿠바의 외무장관이었던 브루노 로데리그즈(Bruno Roderiguez)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쿠바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경제적, 상업적, 재정적인 차단을 중지하고 관타나모 만의 점령된 지역을 돌려주고, 쿠바의 정부

를 인정해 주는 것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에 참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4</sup> 동시에 미국의 국무장관 존 케리(John Kerry)는 8월 14일 아침 일찍 간단한 예식을 열고 하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다시 열었다. 존 케리는 70년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는 미 국무장관이 되었다. 스페인어로 국무장관 존 케리가 연설을 한 후 쿠바계 미국 시인인 리차드 블란코(Richard Blanco)가 자기가 쓴 시, “대양의 상황(Things of Ocean)”을 읽었다. “이제는 우리 두 나라가 더 가깝게 지내야 할 시기입니다. 적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이웃으로 말입니다. 우리 국기들을 높이 날리고 우리 서로에게 최선을 희망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sup>5</sup>

2015년 10월 27일 유엔 총회는 미국의 쿠바에 대한 봉쇄정책에 반대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는 191대 2(미국과 이스라엘)로 나왔다. 미 대사였던 로날드 고다드(Ronald Godard)는 유엔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쌍방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쿠바 정부가 과거에 있었던 동일한 결의안을 제출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sup>6</sup>

로날드 고다드(Ronald Godard)는 투표 후 이렇게 말했다. “이 봉쇄정책은 쿠바 시민들에 대한 극단적으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입니다; 국제법에 어긋나는 일이며, 민족학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sup>7</sup> 외교 관계가 복구된 이후 쿠바의 경제는 대체적으로 향상되었다. 2014년에 비해 쿠바를 가는 미국 관광객들의 수가 36%나 증가했다.

## 라틴 아메리카의 교황 방문과 토착민들에게 대한 사과

2015년 7월 5일에서 11일 까지 프란시스 교황이 토착민들이 제일 많이 살고있는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를 방문했다. 교황 방문이 있기 전에 두번 짜로 보내는 교황의 회칙, “당신에게 찬양(Praise Be To You - Laudato Si)”이 발간되었다.<sup>8</sup> 그 내용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의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권유였다. 볼리비아를 방문하는 동안 프란시스 교황은 볼리비아 수도인 산타크루즈에서 바티칸과 볼리비아 정부의 이보 모랄레즈(Evo Morales) 대통령이 주선한 민중운동 세계모임(Reunion Mundial de Movimientos Populares - World Gathering of Popular Movements)에서 연설했다.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있는 수 천명의 토착민들과 40 기관들을 대표하는 많은 민중 지도자들이 참가한 이 모임에서 교황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겸손히 용서를 빕니다. 교회가 저지른 일뿐만이 아니라 미 대륙 점령 당시 원주민 나라에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용서를 빕니다.”<sup>9</sup> 토착민인 이보 모랄레즈 대통령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다.

프란시스 교황은 영토 점령과 이어서 토착민들에게 행해진 잔인한 결과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 첫번째 교황은 아니었지만 제일 명확하게 용서를 구한 교황이었다. 1992년에 존 폴 존(John Paul John) 교황도 스페인의 미 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했을 때 교회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했으나 절제된 태도를 보였다. 같은 교황이 선교사들로 인하여 오용당한 대양주 토착민들의 용서를 구했다.<sup>10</sup>

프란시스 교황이 사과를 구했던 모임에 참석했던 토착민 지도자들의 반응은 다양하였다. 타카나(tacana) 지도자인 아돌포 샤베즈(Adolfo Chavez)는 “사과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프란시스 교황

같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sup>11</sup> “역사의 페이지를 돌려서, 악수하고 다음 부터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요.” 쿠스코(Cusco)에서 온 페루의 농민 지도자 아 만디나 퀴스페(Amandina Quispe)는 토착민들에게 속하는 땅들을 아직도 교회가 소유하고 있으나 곧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가 우리 땅을 빼앗고 쿠스코에 있는 성전들을 파괴하고 거기에 자기 네들의 교회를 짓고, 우리가 방문하면 돈을 내야 되다니요.”<sup>12</sup>라고 말했다.

프란시스 교황은 그 모임에 온 사람들에게 제일 최근의 교황 회칙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구를 보호하라고 당부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지도자나 특별 계층의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대중과 대중 들이 만드는 조직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sup>13</sup>

교황의 남 아메리카 방문은 파라과이의 카쿠페(Caacupe)에 있는 국립 자연 보호구역에서 미사로 끝 을 맺었다. 그 미사에서 교황은 파라과이의 여성들과 어머니들의 큰 용기를 인정하는 뜻으로, 그들은 “자기 민족들의 삶과 위엄을 다시 세운 유산을 가진 사람들”<sup>14</sup>이라고 말했다. 미사는 주기도문을 토족 민들에게 잘 알려진 과라니(Guarani) 어로 낭독하면서 끝났다.

## 라틴 아메리카의 현 이주 문제

### 푸에르토 리코

2015년 7월 29일에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아(Alejandro Garcia Padilla) 푸에르토 리코 지사는 푸에르토리코가 채무 불이행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명을 했다. 푸에르토리코는 73만 달러의 채무를 갚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금액은 푸에르토 리코의 년 총 생산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다. 실업자 률은 12.4%로 증가하고 미국 대륙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급증적으로 높아졌다. 2014년에는 인구 370만명 중 14만명이 그 섬을 떠나 타주로 이주하였다. 푸에르토 리코는 미국 영 연방이기 때문에 채무자들로 부터 보호를 받고 파산의 경우에 다른 미국 주정부들이 받을 수 있는 채무 재구성의 혜택이 없다. 투자기금 협회는 선생들을 해고시키고, 공공 의료 서비스를 줄이고, 푸 에르토 리코의 고등교육 보조금의 삭감을 제시했다.<sup>15</sup>

연합감리교회가 설립 창시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푸에르토 리코 초교파 종교연합회는 2015년 8 월 31일 다음과 같은 우려의 성명서를 제출했다: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들로서 채무에 대하여 우려한다. 채무 불이행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 무엇보다도 임금을 줄여야하고, 직원들을 해고하고, 직원 혜택을 감소하며, 공공의료 서비스에 오는 결과를 우리는 우려한다. 사회적으로 푸에르토리코의 빈민들의 생활에 악 영향을 가져오는 긴축정책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sup>16</sup>



## 과테말라와 아이티의 선거

논쟁속에 싸여 중앙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과테말라, 아이티에서 민주적 선거가 있었다. 과테말라에서는 부패혐의를 받은 오토 페레스(Otto Perez) 전 대통령이 사직한 후에 코미디언 지미 모랄레스(Jimmy Morales)가 67%의 투표를 받고 선거에 승리했다. 모랄레스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극단의 종교적 보수파였다. 모랄레스가 선거에 이긴 이유는 백성들이 부패된 정부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되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랄레스는 토착민들의 민족 학살을 부인하고 사형을 지지했다.

아이티에서는 폭동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선거가 있었다. 아이티의 선거는 4년이 연기 되었다가 2015년 8월에 입법 선거가 있었다. 아이티 의회는 2015년 1월에 지정된 시간안에 선거를 하지 않은 이유로 해산되었다. 두번째 대통령 선거와 입법 선거가 10월에 열렸다. 이러한 민주적인 정치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셸 마텔리(Michel Martelly) 대통령과 10명의 상원 의원들이 그 나라의 유일한 헌법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마텔리 대통령은 권리 남용의 혐의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첫 의회 선거 당시 거리에는 폭동이 일어 났고, 살해, 선거 사무실들이 약탈 당하고, 수 백명의 시민들이 체포되었다. 대통령 선거 때는 폭력이 완화되었다. 대통령 후보들의 수는 54명이었다. 처음 선거에서 과반수를 받은 후보가 없어서, 호베넬 모이지즈(Jovenel Moises)와 휴드 셀레스틴(Jude Celestin), 2 후보를 두고 12월 말에 두번째 선거가 있었다.<sup>17</sup>

##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위기

아이티의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더 심각해 지고 2010년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그 상황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2010년의 지진으로 20만명이 죽고, 130만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게되었고, 5년이 지난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임시 수용소에서 살고있다. 수 만명의 아이티 계의 주민들을 추방하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최근 법령은 아이티의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고있는 외국계의 사람들은 시민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까지 시민등록을 하도록 되었다. 2014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도미니카 공화국의 시민으로 간주되었다(외교관은 예외). 2014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법적인 신분을 가질려면 적어도 한쪽 부모라도 도미니카 공화국의 법적 신분을 가져야 한다는 법이 통과했다. 그 법은 1929년 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고 있던 아이티계의 주민들은 갑자기 자기들의 시민권을 증명해야 했다.<sup>18</sup>

이 법은 20만명의 아이티계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된다. 그 당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추방되었다.<sup>19</sup> “이것은 시민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침해이다. 이제 우리는 수 천명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생겼다,” 라고 사회학자이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밀라그로스 리콜트(Milagros Ricourt) 교수가 말했다. 그는 뉴욕에 있는 레만(Lehman) 대학에서 푸에르토 리코와 도미니카 연구를 가르치고 있다.<sup>20</sup>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주하는 아이티인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인신매매이다. 아이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일 먼저 노예제도를 폐지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 인구의 2.3%, 즉 237,700명의 여인들과 아동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현대 노예로 팔려가고 있다.<sup>21</sup>

동시에 도미니카 공화국은 카리브해 지역의 마약 거래의 중심지이다. 유럽연맹과 라틴 아메리카의 마약 파트너십 협동(COPOLAD)의 2013년 보고에 의하면 항만경계 및 과학 기술의 부족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은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국가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늘날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과하는 수화물 통제는 불충분하며, 그 지역에 폭력과 부패를 더 증가 시키고 있다... 검사 통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큰 무역 상인들이나 마약거래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sup>22</sup>

##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의 이주

미국으로 오는 중앙 아메리카인들의 이주 문제는 현재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들과 아동들을 포함한 수천명의 중앙 아메리카인들이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북쪽으로 피신하고 있다. 사실 2014년에는 미국으로 이민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졌지만 아직도 이주자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23</sup> 지금의 추세로 보면 중앙 아메리카의 이민자들의 수는 전례에 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 남쪽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가고 있다. 그들은 멕시코에서 머물어야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통계를 보면 107,814명의 중앙 아메리카 이주민들이 멕시코에서 추방을 당했다. 비영리 기관인 이주 정책 사무실(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9월 보고에 의하면, 그 중 752명이 보호자 없이 혼자서 이주하는 아동들과 십대 소년/소녀들이라고 보도되었다.<sup>24</sup> 라틴 아메리카 워싱턴 사무실(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의 뉴스 보도에 의하면 2013년 10월에서 2014년 4월 까지 49,893명의 중앙 아메리카 이주민들이 멕시코 당국에 체포되었고, 162,751명의 멕시코인이 아닌 이주자들이 미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고 보도 되었다. 그 다음 해 2015년 10월 부터 2016년 4월 까지에는 92,889명의 중앙 아메리카 이주민들이 멕시코에서 추방당하고, 70,448명의 멕시코인이 아닌 사람들이 미국 이민국에 의하여 체포되었다,<sup>25</sup>고 보도되었다.

지역 안전 담당자인 라틴 아메리카 워싱턴 사무실(WOLA)의 아담 이작슨(Adam Isacson)은 이 숫자 통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이 숫자들은 2014년의 이주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수많은 중앙 아메리카인들이 아직도 이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미국 대신에 멕시코에서 붙잡힌다. 이 사실은 작년이나 올해나 중앙 아메리카 이주의 근본 원인인 폭력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주자들을 향한 멕시코의 강력한 노력이 중앙 아메리카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하여 우리가 미국에서 느껴야 할 긴급성을 흐리게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지난 2년 동안 보호자 없이 미국 남쪽 국경을 넘어오는 아동들의 수가 전례에 없이 증가했다. “2013년 10월 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멕시코를 접한 미국 국경보호 세관청의 체포 통계에 의하면 중앙 아메리카와 멕시코에서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어오는 아동들의 수가 102,000명이 넘었다”라고 이주 정책 사무실(Migration Policy Office)의 사라 피어스(Sarah Pierce)가 보도했다.<sup>27</sup> “대다수의 멕시코 아이들은 급속히 멕시코로 돌려보내지고,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온 아동들은 미국 법에 의하여 미연방 보건 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에 있는 피난민 재정착 사무실(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에 인계되고, 동시에 추방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피난민 재정착 사무실(ORR)에서 석방되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자기들의 진상이 이민법원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의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들의 보호하에 있게된다.”<sup>28</sup> 이 연구 조사는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소수의 연합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 여성교회들은 이러한 아동을 도우고 있다. 그들을 도우기 위하여 건강 키트와 필요한 물품들을 국경 근방에 있는 교회와 사역지에 보낸다. 많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이 아동들이 긴 이민 절차를 밟는 동안 비공개 기업이 경영하는 교도소 밖에서 데모에 가담하였다. 어떤 여성교회 회원들은 워싱턴 디시에 가서 광범위한 응급 이민 개혁을 채택하도록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해방 신학과 로메로 대주교의 시복식

1960년도와 1970년도 군사억압 시대에 탄생한 해방신학은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가난한 자들의 존재를 기억하는 전통과 현 세상의 빈곤한 자들의 얼굴을 온 교회에 알려주었다. 그들은 신비스럽게도 자기 주변에서 병들고, 굶주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돌봐주던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 25:40). 라틴 아메리카는 기독교화된 지역이며, 빈부의 차이가 심한 곳이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정체에 도전을 주어야 할 것이다.

50년 후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 대본의 부분인 여러 “배우들”을 만나게 된다. 인권, 토착민, 여성들, 청소년들, 농부들, 아프리카계의 후예들, 동성연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민권 운동가 그룹들, 친환경 운동 기관들이 바로 이 배우들이다. 오늘 날 로마 카톨릭이나 신교도 계통의 새로운 신학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은 전통을 벗어나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인 그룹들과의 대화의 한 부분이 되고있다. 나는 또 프란시스 교황의 지도력의 중요성과 로마 교황청에서 제시하는 의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교황이 되고 난 후 “세상의 끝”인 아르헨티나에서 왔다는 사실이 목회 지도력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초 교파적이고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태도로서 무숙자들, 노령자들, 아동들, 이민자들과 피난민들, 환경 문제등에 대하여 프란시스 교황이 한 일과 의사 표시는 그의 겸손한 태도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희망의 증조를 보이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의미에서 프란시스 교황이 특별히 한 일은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Oscar Romero) 대주교의 시복식이였다.

2015년 3월 24일은 라틴 아메리카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날이었다. 라틴 아메리카 교회는 엘살바도르의 로메로(Romero)대주교의 순교 30년을 그날 기념했다. 로메로 대주교는 1980년 수도인 산살바도르에 있는 신의 섭리 병원(Divine Providence Hospital) 예배실에서 미사를 드리는 중 암살단에게 살해 당했다. 그는 자기가 언제든지 암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살인 협박을 여러번 받았던 것이다. 순교 당하기 며칠 전에 그는 영적 수련회에 대하여 이렇게 적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 나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바란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도운다. 내가 마지막 숨을 쉴 때 나는 하나님을 정말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sup>29</sup>

로메로 대주교의 시복식 과정은 베네딕트 교황 16세 법왕제도 동안 교황청의 신앙교리성(Vatican's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Faith)에서 연기되었다. 로메로 대주교를 개인적으로 알고, 동시에 엘살바도르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 교황 임기시에는 그 과정이 시성성(Congregation for the Saints)에 위임이 되었다. 5개월이 지난 2015년 초에 시성성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로메로 대주교의 죽음이 믿음의 증오로 인한 기독교 순교라는 것이 인정되었다. 로메로 대주교의 가까운 믿음의 친구인 유리오스테(Urioste) 감독은 로메로 대주교의 신앙과 메시지가 깊이 기도하는 삶에 뿌리잡고 있음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삶의 모든 근원은 기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메로 대주교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sup>30</sup>

로메로 대주교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이었다. 대성당에서 주어진 그의 설교들은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으로 전해졌다. 그의 설교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인류의 역사와 엘살바도르의 현실에서 보는 관점으로 깊이 연결되어있다. 그의 메시지는 엘살바도르 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광야에서 예언자의 목소리를 높였고, 그의 목소리는 지금 들리지 않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생생히 살아 남아 있다. “나는 죽어서 살바도르 사람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호언장담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겸손으로 하는 말입니다... 감독은 죽지만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의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순교 바로 전날인 1980년 3월 23일에 들려준 설교에서 그는 말했다.<sup>31</sup>

구세주 상(Divine Savior of the World)이 있는 산살바도르에서 열린 시복식에 프란시스 교황을 대표하여 시성성(Congregation for the Cause of the Saints) 지모인 안젤로 아마토(Angelo Amato) 카디날이 참석했다. 안젤로 카디날은 로메로 주교가 카톨릭 교회의 성인을 지정하는 과정의 “신성” 단계에 있다고 선언했다. “로메로 대주교의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sup>32</sup> 시복식 후에 아마토 카디날은 라틴어로, 스페인어로 교황이 보낸 서신을 읽었다.

오스카 아르놀포 로메로 갈다메즈(Oscar Arnulfo Romero Galdamez) 대주교의 시복식은 살바도르 시민들과 교회의 모범 자녀들을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평화를 이룬 로메로 대주교는 자기의 삶으로 가장 좋은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에게 봉사하며,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이 된 열정적인 주교를 우리 교회에 보내 주셨습니다. 상호 생존이 어려운 오늘날 로메로 대주교는 복음에 충실하고 모든 교회와 교감하면서 양들을 지도하고, 옹호하고, 보호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사랑과 화해의 거룩한 희생을 축하하면서, 사망을 통하여 로메로 대주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주님과 완전히 동일시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sup>33</sup>

## 라틴 아메리카의 기후정의 사역

기후 정의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비교적 새로운 관심사이지만, 토착민들에게는 오래된 문제이며 그들이 제일 많은 영향을 받고있다. 수 십년 동안 외부 개발업자들이 자연 자원을 이용하면서 그 지역에서 일해왔다. 그 결과는 자연 자원과 땅을 착취하고 황폐하게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으로 몰아 넣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관례와 교회가 이러한 착취를 하도록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사무엘 아귈라(Samuel Aguilar) 페루 감리교 감독은 2015년 6월에 기후 정의를 위해 일하는 감리교인들을 모아 창조물 관리에 헌신하는 기독교인들(Christians Committed for the Care of Creation)이라는 그룹을 조직했다. 다른 종교 단체와 함께 이 그룹은 2014년 12월에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열린 COP20행사에서 큰 영향을 가져왔다. “COP모임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종류의 모임에서 교회와 신도들이 의미 있는 존재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리디아 디아즈(Lidia Diaz)는 말했다. 그는 이 행사의 추진위원회로 등장한 페루 종교 간 협의회(Peru Inter-Religious Council)의 감리교 대표이다.<sup>34</sup>

“이 위원회를 조직한 주 목적은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잘 관리해야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그룹의 목적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아귈라(Aguilar) 감독은 답변했다.<sup>35</sup> “페루의 교회와 다른 종교 단체들은 기후 변화와 생태계 위기의 현실을 묵인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위기의 현실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어 받을 지구에 대하여 고려해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내일로 미룬다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몇가지 목회자로서의 행동을 취해야할 것입니다. 정말 긴급한 일입니다.”라고 아귈라 감독은 계속해서 말했다.<sup>36</sup>

2015년 11월 13일에, 창조물 관리에 헌신하는 기독교인들(Christians Committed for the Care of Creation)은 다음 달 파리에서 열리는 COP21의 실천 전략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독교 교파들과, 비영리기관들, 페루 정부의 환경부 사이의 원탁대화를 조직했다. 프란시스 교황의 두번째 회칙, 우리 공동의 집 관리(On Care for Our Common Home)를 기초로 참가자들은 몇가지 추천을 했다. 그들이 합의한 몇가지는 다음과 같다: 교회와, 종교 단체들과 기관들의 환경 관례를 도전한다, 29일에 페루 여러 도시에서 있었던 행진과 시위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있을 COP21국제 모임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온 세계 각처에서 있을 것입니다.”라고 기후 변화 시민 운동(Citizens Movement for Climate Change)의 로시오 발데아벨라노 로카 레이(Rocio Valdeavellano Roca Rey)는 말했다.<sup>37</sup> 또 참가자들은 페루 지역에 10년 동안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s)와 농산업 사업 활동 중단에 합의했다. 페루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s) 생산과 수입 및 사용을 금지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 금지는 2017년 까지 유효하며 재심리를 하게 되어 있다.

총 집회가 생태계 위기는 가난과 불평등 문제의 해결과 밀접히 관계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우리의 생활 방식과 현재의 개발 형식을 변화 시켜야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나라의 생태계 위기와 빈민자들의 생활 환경 문제를 다루어야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평등한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라고 카톨릭 교회의 청소년들을 교육하며 다른 종교 단체와 연결되는 비영리기관 녹색 양(Green Sheep)의 대표 지도자, 크리스찬 이파나퀘이(Christian Ipanaque)는 말했다.<sup>38</sup>

그 집회에서 환경부의 생물 다양성 부서 총재인 호세 알바레즈 알론소(Jose Alvarez Alonso)는 페루 및 해외의 강력한 경제적 분야에서 강압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종 보존과 빈민자 보호 프로젝트가 자기 관리하에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말했다. 그 프로젝트의 하나는 페루의 아마존 지역 로레토(Loreto)와 우카얄리(Ucayali) 사이에 있는 시에라 델 제수 국제공원 프로젝트(Sierra del Divisor National Park Project)이다. 이 공원은 보존의 중요성과 아름답고 웅장한 지질적인 특색 때문에 “아마존의 옐로스톤(Yellowstone of Amazon)”이라고 불리운다. 그 지역은 330만 에이커의 땅으로 토착민들과, 멸종위기의 동물들과,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야생적인 풍경이 있는 곳이다. 시에라 델 제수 숲은 1억 6천5백만 톤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회담 동안 페루의 기후 서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sup>39</sup>

##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교사들

여러 세기 동안 여성들은 선교 활동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 연합감리교회의 라틴 아메리카 선교 사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감리교회 여성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려 라틴 아메리카로 갔다. 그들은 선생으로, 아동들의 지도자로, 여성들의 역할 모델로 섬겼다. 몇몇 학교도 세우고, 라틴 아메리카에 놀라운 기여를 한 미국의 선교 기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학교 건물의 대부분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헌금으로 세워졌으며, 장학금과 선교사들이 현지에 있을 수 있도록 보조해 왔다.

미(북)감리교회는 1916년 파나마 의회에서 여성교육의 개척자로 간주되었다. 그때까지 미(북)감리교회의 해외 여성교사공회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교육기관들을 후원하고 있었다: 멕시코, 몬티비디오(우루과이), 로زاری오와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이퀴퀘(Iquique), 산티아고와 콘셉시온(칠레), 칼라오와 리마(페루)등이다. 동시에, 미(남)감리교회는 주로 브라질에서 교육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처음 선교 활동이 시작된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은 라틴 아메리카 토착민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나라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선교 사역은 교육이 좀더 적합한 공헌의 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이 초기 선교사로 가게된 것이다. 그 시기에는 보통 여성들이 선생으로 일을 했다. 예를 들면 페루가 좋은 예로서, 거기에 4 학교가 설립되었다: 카야오 고등학교(지금은 카야오 아메리카 대학Colegio America del Callao), 리마 고등학교 (지금은 마리아 알바라도Maria Alvarado 1906), 북미 학교(지금은 중앙 안데스에 있는 후안카요 안디노 대학Colegio Andino in Huancayo 1913), 앵글로 아메리카 학교(Anglo-American School), 라 빅토리아(La Victoria), 리마(지금은 빅토리아 아메리카 대학Colegio America de la Victoria 1915) 등이다.

페루의 감리교회가 1970년에 처음으로 독립했을 때 페루의 첫 감독인 웬체스라오 바하몬데(Wenceslao Bahamonde) 감독은 교육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감리교회 교육 사역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일 중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드 여사와 그녀의 아버지가 세운 학교는 페루 주민들과 페루 정부 당국의 인정을 받았습니다.”<sup>40</sup>

카야오 고등학교는 1891년에 세워졌다. 미(북)감리교회에서 선교사로 발송된 인디애나 주 라파엣의 토마스 우드 목사는 3명의 자기 딸들을 위한 적당한 교육 시설이 없음을 깨달았다. 카야오 고등 학교는 첫 남녀공학의 학교였다. 19세기 말에 남녀공학의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 때 까지 페루에는 소년들을 위한 학교는 있었지만 소녀들을 위한 학교는 별로 없었다. 대개 가톨릭 교회가 그 학교들을 세우고 관리했다. 그 때에는 가톨릭 교회외에는 민권 운동이나, 민법상의 결혼이나,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마 고등학교는 1906년에 토마스 우드 목사의 딸인 엘시 우드(Elsie Wood)가 설립했다. 거트루드 헵크스(Gertrude Hanks) 선교사와 오펠 마이어(Opal Meier)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엘시 우드가 교장이 되었다. 1960년에야 처음으로 페루 시민인 올가 드 벤더그렘(Olga de Vanderghem)이 교장이 되었다. 이 학교는 여자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서 그 학교 구내에 몇명의 여 선교사들이 살고 있었다. 이 학교는 감리교회 해외여선교사공회의 후원으로 경영되었다.

초기부터 선교사들은 현지의 사람들을 훈련하여 학교 직원으로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1917년에 나온 평가서는 이렇게 적고있다, “우리의 개념과 노력에 동감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된 선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절실하다.”<sup>41</sup> 주로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직원들의 핵심이었으나 지방 선생들도 직원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다. 대다수의 선생들은 같은 학교를 나온 감리교회 동문들이었다. 이 선생들의 몇 명은 미국으로 와서 교육을 받았다.

로자 델 카르만 브루노-호프레(Rosa del Carmen Bruno-Jofre)는 자기가 쓴 책, *페루의 감리교 교육 (Methodist Education in Peru)*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육에 종사하는 여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여성 교육계의 페루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엘시 우드 여사는 페닝 학교에서 가르쳤고 페닝의 테레사 곤잘레즈(Teresa Gonzalez)와 같은 이상을 나누었다. 20년 동안 리마 고등학교의 교장이었던 거트루드 헵크스(Gertrude Hanks)는 잘 알려진 페루의 교육자 엘비라 갈시아(Elvira Garcia y Garcia)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이 학교는 여성들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1914년에 조직된 에블루시온 페미니나(Evlucion Feminina) 여성회의 인정을 받았다.”<sup>42</sup>

브라질의 선교 교육 사역과 여성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에니 뉴만(Annie Newman, 1856-1880)과 마르다 왓츠(Martha Watts, 1845-1910)가 브라질 감리교회 역사상 중요한 인물로 인정 받는다. 뉴만(Newman)은 원래 알라바마 주의 리빙스턴에서 왔고, 왓츠는 켄터키 주의 루이빌에서 왔다. 뉴만(Newman)은 11살 때 선교사인 아버지 주니어스 뉴만(Junius Newman) 목사를 따라서 브라질로 왔다. 그녀는 장로 교회에서 세운 국제학교에서 포르투갈어를 배웠다. 왓츠(Watts)는 수 년 후에 뉴만(Newman)의 본을 따랐다. 1880년 결혼한지 1개월만에 화열병으로 사망한 에니 뉴만(Annie Newman)에 대한 그녀의 남편 존 램슨(John Ramson) 목사의 극적으로 강렬한 간증에 감동을 받고 왓츠(Watts)는 브라질에 오게된 것이었다.<sup>43</sup>

에니 뉴만(Annie Newman)은 “피라치차바(Piracicaba)에서 그의 누이 메리 뉴만(Mary Newman)과 3명의 보조자들과 임시 미술 선생의 도움으로 학교를 열었다.”<sup>44</sup> 그 학교는 1879년에 뉴만 학교(Newman School)라고 알려졌고, 피라치차바 학교(Piracicaba School)라고도 알려졌다. 그 학교는 1880년에 에니 뉴만(Annie Newman)이 사망한 후 왓츠(Watts)가 올 때까지 당분간 문을 닫았었다.

왓츠(Watts)의 사역은 그 학교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미(북)감리교회와 미(남)감리교회의 재정적인 후원과 그 사역에 헌신한 지방 주민들의 도움이 컸다.

1881년 3월, 도착한 후, 2개월만에 왓츠가 리오를 묘사한 글이 여선교사 대변자에 이렇게 나와있다, “4십 만명이 살고 있는 이 큰 도시에 우리 마음 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감정을 흔들도록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비를 갈망하며 외치고 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잘 곳이 없어 길 거리에서 죽어 가는 어린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그들의 영혼들을 돌봐 줄 손길들이 없어 소외감과 비참한 삶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sup>45</sup>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선교사들의 존재와 노력이, 특별히 여선교사들의 유산이, 이 지역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역에 뼈대와 주춧돌이 되고 있다.

사회 통신자이며 아르헨티나 감리교회에서 지도자로 잘 알려진 데프니 플루(Dafne Plou)는 총회 세계선교부의 후원을 받는 여선교사들을 이렇게 평가했다; “나의 경험으로는 연합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여선교사들이 하는 일은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매우 긍정적이며 감동적인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sup>46</sup> 아르헨티나에는 결혼한 선교사 및 미혼의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다. 그들은 대개 대 브에노스 아이레스(Greater Buenos Aires)남쪽 지역과 로마스 데 자모라(Lomas de Zamora)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플루(Plou)는 “아동과 십대 소년들을 위하여 기독교 교육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에이더 앤더슨의 사역을 강조했다. 플루(Plou)는 또 “군사 독재 정권과 말비나스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남편과 교회를 따라가서 아르헨티나 북쪽 지방에서 열심히 일한 벨린 롱(Valine Long)”에 대해서도 언급했다.<sup>47</sup>

플루(Plou)가 언급한 선교사들은 1970년도, 1980년도, 그리고 1990년도에 아르헨티나와 그 근방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봉사했다. 플루(Plou)는 또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일한 마가렛 스톡웰(Margaret Stockwell)을 포함한 여러 다른 여선교사들의 사역을 기억한다. 마가렛은 위대한 헌신의 정신을 가진 여성으로 감리교 여성들에게 많은 공헌을 하고, 교회 내부 및 외부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와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영성을 길러주었다.<sup>48</sup> 플루(Plou)는 또 아르헨티나 감리교회 총회에서 초대 지방 감리사로 선출된 팻트리시아 리차드슨(Patricia Richardson)의 사역도 강조했다: “교회의 삶에 대한 토의에서 목적을 위한 그녀의 조언과 통찰력을 나는 기억합니다. 어디서든지 취약한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그녀의 설교와 의지를 나는 또 기억합니다.”<sup>49</sup>

지난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감지된 세계선교부의 선교 접근 방향에 변화가 있다. 세계선교부는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을 분권화하고 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선교 사무실을 설립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관점에서 지역적인 선교가 계획되고 구현되어야 합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전략적인 선교 목적은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교회와 커뮤니티를 강화 시키고, 인류의 고통을 완화하고, 각 나라의 필요에 맞게 적응되는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도모하는 것입니다.”<sup>50</sup>라고 페루에서 일하는 칠레의 선교사, 도라 카날레즈(Dora Canalez) 박사가 말했다. 카날레즈 박사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남쪽은 남쪽으로’라는 세계선교부의 선교 추진 계획의 결과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의 하나는 선교의 새로운 예를 세우면서 젊은 감리교인들을 포함하기 위함이다.

총회 세계선교부의 선교 관계 총무인 후안 가티노니(Juan Gattinoni)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감리교회에서 열리는 모든 원탁회의 에서는 여성 회중을 위한 사역의 중요성과 교회안



에서의 그들의 존재의 중요성을 의논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교회 여성 신도들은 연합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별에 대한 문제들을 더 강력하게 다루고 사회와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과 여성들의 요구들을 다루는 여성 선교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라틴 아메리카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지역 선교사 추진 계획

2014년 1월에 페루에 있는 카와이(Kawai)에서 오랫동안 처음으로 라틴 아메리카 감리교회 여성교회의 모임이 열렸다. 많은 참가자들에게는 이 모임이 최초의 국제적인 모임이었다. 이 행사는 총회 고등 교육사역부, 다락방, 총회 제자훈련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페루 감리교회의 후원으로 열렸다.

지역 위원회의 주최로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약 80명의 여성들이 서로 배우고, 자기들의 삶과 자기 나라의 여성교회를 위한 꿈과 희망을 나누면서, 감리교회와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현 위치와 발전을 검토하기 위하여 모였다. 라틴 감리교회 여목회자회(Association of Latina Methodist Clergy Women)를 대표하는 라틴 감리교회 여성들,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처음으로 미국의 대표로 참가했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본부의 국장인 헤리엇 제인 올슨(Harriett Jane Olson)도 미국 대표로 참가했다. 이 행사의 주제는 “우리의 존엄성을 재확인하기”였다. 기조연설자들은 리마 웨슬리 신학교(Wesleyan Seminary in Lima) 학장인 도라 카날레스(Dora Canales) 박사, 라틴 감리교회 여목회자회(ACLAMEN)의 공동 의장이며 보스턴 신학교의 교수인 크리스찬 데라 로자(Christian de la Rosa), 라틴 감리교회 여목회자회(ACLAMEN)의 회원이고 미국 히스패닉 감리교인 조직(MARCHA)의 대표이며 연합감리교회 히스패닉 라티노 코커스의 대표인 로잔나 페니조(Rosanna Panizo) 목사들이었다.

2015년 8월에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국제사역부는 이 지역에 새로운 지역 선교사, 안드레아 로차 라일리 소레스(Andrea Rocha Riley Soares)의 임명을 발표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지도력 개발 영역에서 소레스의 사역은 세계 각처에 이미 봉사하고 있는 7명의 지역 선교사들과 함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추진 계획을 확장 시킬 것이다.<sup>51</sup>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선교사들의 사역은 “라틴 아메리카의 성별과 성별의 평등 문제와 관심사들을 파악하고 교회와 커뮤니티 지도력 영역에서 여성들의 풍성한 삶과 권리 부여를 장려하며, 고향을 잃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수입과 안전을 보장하며, 모든 감리교회 여성들의 지도력 개발을 보조하고 향상하는 것이다.”<sup>52</sup>

총회 세계선교부의 선교 관계 총무인 완 가티노니(Juan Gattinoni) 목사는 아르헨티나의 브에노스 아이레스 세계선교부 지역 사무실과의 안드레아의 공동 작업과 자치 교회들에 의해서 조직된 원탁회의 참석에 기대가 크다.

## 결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역사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또 특별히 여성들이 남아메리카의 파트너들과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연합감리교회의 선교 관계 때문에 미국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성들의 삶과 커뮤니티에 미치는 선교의 영향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들은 선교 사역의 자원을 준비하는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이 어떻게 삶을 보존하고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나를 배우게 될 것이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랑이 그 무엇보다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상호적인 체제 안에서 선교의 접근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로산나 파니조-발라다레스(Rosanna Panizo-Valladares)목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의 목회자이다. 페루에서 태어나서 페루 감리교회에서 자랐다. 지금은 라틴 아메리카 성경 대학(Latin America Biblical University)으로 알려진 코스타리카의 감리 신학교에서 기초적인 신학 목회학을 공부했다. 1986년 3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10년 동안 페루의 코뮤니다드 비브리카 티오로지아(Comunidad Biblica Teologia)의 교구 목사로 교구 목회와 신학적인 기초를 닦은 후, 미국 듀크 신학교(Duke Divinity School)에서 1998년에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4여년 동안 덜햄(Durham)과 벌링튼(Burlington)에서 영어 회중의 목사로, 스페인어 일세 회중의 목사로 일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18년을 지내고 지금은 페루의 리마에 있는 웨슬리 신학교(Seminario Teologico Wesleyano)에서 학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후주

1. Mario Góngora, *Estudios Sobre la Historia Colonial de Hispanoamérica* (Santiago de Chile: Editorial Universitaria, 1998), 51.
2. “Indigenous Peoples in Latin America-a general overview(라틴아메리카 토착민-일반 개요),”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 accessed December 20, 2015, [www.iwgia.org/regions/latin-america/indigenous-peoples-in-latin-america](http://www.iwgia.org/regions/latin-america/indigenous-peoples-in-latin-america). For further details, see *Latin America: People and Faith(라틴 아메리카: 사람들과 그들의 신앙)* by Sonia Maria Barbosa Dias (New York: United Methodist Women, 2015), 50.
3. “Seventh Summit of the Americas(7회 아메리카의 정상 회담),”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ctober 12, 2015, [www.summit-americas.org/seventhsummit.htm](http://www.summit-americas.org/seventhsummit.htm).
4. “Estados Unidos Inaugura Oficialmente su embajada en Cuba,” *Granma*, August 14, 2015, quotation translated by author, [www.granma.cu/mundo/2015-08-14/estados-unidos-inaugura-oficialmente-su-embajada-en-cuba](http://www.granma.cu/mundo/2015-08-14/estados-unidos-inaugura-oficialmente-su-embajada-en-cuba).
5. “Remarks at Flag Raising Ceremony(국기 게양식에서의 발언),”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August 14, 2015, [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5/08/246121.htm](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5/08/246121.htm).
6. Elise Labott and Richard Roth, “U.N. Overwhelmingly Rejects Embargo on Cuba(유엔은 압도적으로 쿠바에 대한 통상금지령을 거부한다),” *CNN Politics*, October 28, 2015, [www.edition.cnn.com/2015/10/27/politics/un-vote-cuba-embargo](http://www.edition.cnn.com/2015/10/27/politics/un-vote-cuba-embargo).
7. Ibid(같은 글에서).
8. Pope Francisco, *Laudato Si’ Sobre el cuidado de la casa común*, (Lima: Paulinas, 2015), 4.
9. “La visita del Papa Francisco a Bolivia en diez frases,” *La Nación Mundo*, July 10, 2015, quotation translated by author, [www.nacion.com/mundo/latinoamerica/visita-papa-Bolivia-frases\\_0\\_1498850171.html](http://www.nacion.com/mundo/latinoamerica/visita-papa-Bolivia-frases_0_1498850171.html).
10. Ibid(같은 글에서).
11. Ibid(같은 글에서).
12. Ibid(같은 글에서).
13. “Discurso del Papa en el encuentro con los movimientos populares en Bolivia,” *Catholic News Agency*, October 9, 2015, quotation translated by author, [www.aciprensa.com/noticias/texto-discurso-del-papa-el-encuentro-con-los-movimientos-populares-en-bolivia-80606](http://www.aciprensa.com/noticias/texto-discurso-del-papa-el-encuentro-con-los-movimientos-populares-en-bolivia-80606).
14. Ibid.
15. Michael Corkery and Mary Williams Walsh, “Puerto Rico’s Governor Says Island’s Debts Are ‘Not Payable(프에르토리코 지사는 섬의 부채가 갚을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The New York Times*, June 28, 2015, [nytimes.com/2015/06/29/business/dealbook/puerto-ricos-governor-says-islands-debts-are-not-payable.html](http://nytimes.com/2015/06/29/business/dealbook/puerto-ricos-governor-says-islands-debts-are-not-payable.html).
16. “A Call From the Ecumenical and Inter-Religious Coalition and Other Religious Leaders for a Jubilee for Puerto Rico: The Fiscal Crisis(프에르토리코의 기념제를 위한 세계적인 종교 연합과 타 종교 지도자들의 호소: 국가 제정의 위기),” *Jubileusa.org*, August 31, 2015, <http://jubileusa.org/fileadmin/PuertoRicoReligiousLeaderCallEnglishFinal.pdf>.
17. Associated Press(연합 통신사), “Haiti elects president-but nobody knows for sure who voters chose(아이티 대통령 선거-투표자들이 누구를 투표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The Guardian*, October 26, 2015, [www.theguardian.com/world/2015/oct/26/haiti-elections-2015-voters-face-long-wait](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oct/26/haiti-elections-2015-voters-face-long-wait).
18. Michelle Wucker, “The Dominican Republic’s Shameful Deportation Legacy(도미니카 공화국의 수치스러운 추방 유산),” *Foreign Policy*, October 8, 2015, <http://foreignpolicy.com/2015/10/08/dominican-republic-haiti-trujillo-immigration-deportation>.
19. “Dominican Republic urged not to deport stateless Dominicans(도미니카 공화국은 국적 없는 도미니카 공화국 주민을 추방하지 말라고 충고 받다),” UNHCR, June 19, 2015, [www.unhcr.org/5584221a6.html](http://www.unhcr.org/5584221a6.html)
20. Milagros Ricourt, in discussion with the author, October 31, 2015.
21. Comunicaciones Aliadas, “Modern Slaver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현대판 노예제도),” *Latin America Press*, June 3, 2015, [www.lapress.org/objetos/informe/29PI\\_infolp-modern-salavery.pdf](http://www.lapress.org/objetos/informe/29PI_infolp-modern-salavery.pdf).

22. “Dominican Republic Emerges as Drug Trafficking Center of the Caribbean(도미니카 공화국이 카리브해 지역의 마약거래 중심지로 등장하다).” *HuffPost Latino Voices*, January 23, 2013, [www.huffingtonpost.com/2013/01/23/dominican-republic-emerge\\_n\\_2533210.html](http://www.huffingtonpost.com/2013/01/23/dominican-republic-emerge_n_2533210.html)
23. Jie Zong and Jeanne Batalova, “Central Amer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미국의 중앙 아메리카 이민자들),” Migration Policy Institute, September 2015, [www.migrationpolicy.org/article/central-american-immigrants-united-states](http://www.migrationpolicy.org/article/central-american-immigrants-united-states).
24. Ibid(같은 글에서).
25. “Mexico Now Detains More Central American Migrants than the United States(미국보다 멕시코가 중앙 아메리카에서 온 이주자들을 더 많이 수감하고 있다),” 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 June 11, 2015, [www.wola.org/news/mexico\\_now\\_detains\\_more\\_central\\_american\\_migrants\\_than\\_the\\_united\\_states](http://www.wola.org/news/mexico_now_detains_more_central_american_migrants_than_the_united_states).
26. Ibid(같은 글에서).
27. Sarah Pierce, “Unaccompanied Child Migrants in U.S. Communities, Immigration Court, and Schools(미국 커뮤니티와 이민 법정, 학교의 보호자 없는 아동 이주자들),” Migration Policy Institute, October 2015, [www.migrationpolicy.org/research/unaccompanied-child-migrants-us-communities-immigration-court-and-schools](http://www.migrationpolicy.org/research/unaccompanied-child-migrants-us-communities-immigration-court-and-schools).
28. Ibid(같은 글에서).
29. James Brockman, *La Palabra Queda: Vida de Monseñor Oscar A. Romero* (San Salvador, UCA editors, 1985), quotation translated by author, 329.
30. Simeon Reyes, “Mons. Romero Hombre de Dios y Mártir,” *Palabra*, 2015, quotation translated by author, [www.revistapalabra.es/?s=simeon+reyes](http://www.revistapalabra.es/?s=simeon+reyes).
31. Adolfo Pérez Esquivel, “Monseñor Romero: si me matan resucitaré en mi pueblo,” ALAI, March 23, 2015, quotation translated by author, [www.alainet.org/es/articulo/168353](http://www.alainet.org/es/articulo/168353).
32. Mario Enrique Paz, Byron Sosa, Ricardo Flores, “Su opción por los pobres no era ideológica sino evangélica,” *La Prensa Gráfica*, May 24, 2015, quotation translated by author, [www.laprensagrafica.com/2015/05/24/su-opcion-por-los-pobres-no-era-ideologica-sino-evangelica](http://www.laprensagrafica.com/2015/05/24/su-opcion-por-los-pobres-no-era-ideologica-sino-evangelica)
33. “Pope Francis sends letter for the beatification of Óscar Romero(프란시스코 교황이 오스카 로메로의 시복식에 서신을 보낸다),” *NEWS.VA*, May 23, 2015, [www.news.va/en/news/pope-francis-sends-letter-for-the-beatification-of](http://www.news.va/en/news/pope-francis-sends-letter-for-the-beatification-of)
34. Lidia Diaz, in discussion with the author(작가와 논의함), November 3, 2015.
35. Bishop Samuel Aguilar, in discussion with the author(작가와 논의함), October 27, 2015.
36. Ibid(같은 글에서).
37. Rocio Valdeavellano Roca Rey, COP 21 roundtable dialog, (Christians Committed for the Care of Creation 창조물 관리에 헌신하는 기독교인들, Lima, Peru, November 13, 2015).
38. Christian Ipanaqué, COP 21 roundtable dialog, (Christians Committed for the Care of Creation 창조물 관리에 헌신하는 기독교인들, Lima, Peru, November 13, 2015).
39. José Alvarez Alonso, COP 21 roundtable dialog, (Christians Committed for the Care of Creation 창조물 관리에 헌신하는 기독교인들, Lima, Peru, November 13, 2015).
40. Wenceslao O. Bahamonde, *El Establecimiento del Cristianismo Evangélico en el Perú 1822–1900* (Lima: Iglesia Metodista del Perú, 2003), 159
41. Rosa del Carmen Bruno-Jofré, *Methodist Education in Peru: Social Gospel, Politics, and American Ideological Economic Penetration*(페루의 감리교인 교육: 사회적인 복음, 정치, 미국의 이념적인 경제 침투), 1888–1930 (Waterlo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1988), 151.
42. Ibid(라틴아메리카 토착민-일반 개요), 170–171.
43. Cyrus B. Dawsey and James M. Dawsey, *The Confederados: Old South Immigrants in Brazil* (Alabama: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8), 116-130.
44. Ibid(같은 글에서), 127.

45. Zuleica de Castro Coimbra Mesquita, “Martha Watts: uma educadora metodista na blle époque tropical,” *Revista de Educacao do COGEIME*, no. 20, June (2002), quotation translated by author, 101.
46. Dafne Plou, e-mail to author, November 10, 2015.
47. Ibid(같은 글에서).
48. Ibid(같은 글에서).
49. Ibid(같은 글에서).
50. Dora Canales, in discussion with the author, November 15, 2015.
51. “Regional Missionaries(지역 선교사들),” *United Methodist Women*, accessed December 20, 2015, [www.unitedmethodistwomen.org/missionaries](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missionaries).
52. “Announcing a New Regional Missionary in Latin America(라틴 아메리카의 새 지역 선교사 임명을 발표하면서),” *United Methodist Women*, August, 5, 2015, [www.unitedmethodistwomen.org/news/announcing-regional-missionary-in-latin-america](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news/announcing-regional-missionary-in-latin-america).